

## 제3회 일본 진단 세미나

- ◆ 주제: 일본 언론보도에 비친 한국
- ◆ 일시: 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15:00-17:00
- ◆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L Room
- ◆ 발표: 김경주 (일본 도카이대 국제학부 부교수)

### ■ 발표 내용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일본 도카이대학의 김경주입니다. 제 전공은 사회언어학의 담화분석인데요, 특히 '비판적 담화분석'은 신문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분석을 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 자체가 언어학에서 부각된 지가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일본의 하시모토 현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언론의 정치, 사회적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대되리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일관계를 미디어, 언론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언론과 우리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사건 즉 하나의 사실관계(fact)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미디어(media)의 편집을 거쳐 정보(information)로 처리된 다음, 청자(audience)는 그 편집된 정보를 받아들리게 됩니다. 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주로 첫번째 요소인 사실관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시간적, 공간적 실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관계를 인식할 때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것, 특히 외국에서 일어난 사실들은 거의 대부분 정보라는 간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요즘 정보화시대라고들 하는데요, 예전에는 신문이나 방송에서만 정보를 얻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청자의 자발적인 정보 수집과 발신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청자가 정보를 어떻게 접하고 해석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언론 연구를 이야기할 때, 그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이 주로 사실관계를 다룬다면, 'Media Studies'의 영역은 언론, 정보, 청자 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룹니다. 우선 미디어의 중개자 역할에 대한 연구가 가능합니다. 미디어가 정보를 통해서 사실관계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데, 이 때의 정보는 '편집'의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편집하는가, 또한 그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가 편집하는 정보 자체의 구조에 대한 연구분야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비판적 담화분석이라는 분야입니다만 정보의 언어학적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화자(미디어)의 의도를 도출해 내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의 구조파악을 통해 발견된 미디어의 아젠다나 프레임이 청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국 미디어의 정보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 즉 사실은 것은 어느 정도 객관화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미디어가 어떻게 정보를 편집하고, 정보 속에서 어떤 주관적 주장을 하고, 그것이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일반화된 경향을 발견하기란 생각처럼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오늘 강연은 각 신문사의 보도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일본 신문에 한국의 모습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비쳤는지를 객관적 통계 자료의 양적 추이를 통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슬라이드에는 과거 10년 간 일본 신문에 보도된 한국관련 기사의 양적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일간지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보도된 시점은 한일월드컵이 개최된 2002년입니다. 그 후 여러 번의 등락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2년만큼의 집중적인 조명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한일간의 사회적 배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3-2004년 경에는 드라마 '겨울연가'로 인해 한류 붐이 시작되었지만,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이 지정되면서 그 동안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이 있어 왔던 한일관계가 급랭하게 되고, 이 갈등은 2006년 정도까지 지속됩니다. 2007-2009년에는 자민당 출신 총리의 잦은 변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등으로 일본 국내 정치의 상당한 혼란기가 이어지고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사회 배경과 언론 보도의 양적 추이를 보면, 결론적으로 한일간 갈등이 있을 때 한국에 대한 양적 보도는 함께 늘어나고, 일본 국내 상황이 긴장감 있게 돌아가면 한국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다, 다만 한일간 갈등이 없을 때에도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변화 내지 긴장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보도도 함께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에 대한 분야 별 보도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에서는 한국의 문화, 특히 한류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신문 보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입니다.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치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는 의외로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정치와 사회를 합산할 경우 약 40%를 차지해서, 36%의 경제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비율의 차이 보다는 그 흐름을 보았을 때 상당히 흥미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관련 보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보도의 비율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분야 보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 2008년 경부터 인데요, 사실 2008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전력난 등으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매우 우려되던 데다, 2010년 1월에는 삼성이 매출 면에서 세계 최고의 IT 가전 업체가 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일본 언론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관련 보도는 한국에 대한 전체 보도 중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정치와 사회를 통합하여 살펴 본 것입니다. 정치사회 요소는 전체 보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쉽게 확인됩니다. 물론 처음으로 경제 관련 뉴스 비중이 정치를 제친 것이 2008년입니다. 2010년에는 그 차이가 약 1%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1%라면 굉장히 적을 것 같지만 1년에 약 3만 건 정도의 한국 키워드가 보도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2009년에는 돌발적인 북한의 2차 핵실험 때문에 정치관련 뉴스가 돌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2008, 2010, 2011년 모두 경제 뉴스 보도가 수위에 서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대통령의 독도 방문 시점 이전의 통계자료에서도 이 추세가 지속된 것을 보면, 2012년 역시 이 이슈가 아니었다더라면 경제관련 보도가 정치 보도를 앞섰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갈등이 늘어났을 때 정치 관련 보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경제 보도의 증감 추세는 삼성의 성과나 일본의 상대적 경제적 어려움 같은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배경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2010년에 삼성이 일본에 미친 영향은 가히 '쇼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현철 교수님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한류와 삼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자면, 언론 보도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한류에서 삼성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인식 변화를 실은 우리 학자들을 비롯해서 한국 측이 명확히 인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이 매출 117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최고의 IT 업체가 되고, 영업이익에서 10조원을 돌파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15개 전자기업의 총 영업이익을 능가했다는 보도는 이번 조사대상 외의 거의 모든 언론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예로 닛케이기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을 따라잡아라'라는 특집 연재 기사를 신기 시작했는데, 당시 삼성 관련 기사의 표제어를 보면 '파나소닉 조직재편', '삼성에 대항할 기동력 연마', '가전·반도체·태양전지 분야에서 삼성이 신흥시장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눈에 띕니다. 아마 이 시기의 보도로 인해서 삼성이라는 업체에 대해 한국에 대해서 보다 선진화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삼성은 한국 경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삼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힘을 보았고, 이 경쟁에서 절대로 질 수 없다는 라이벌 의식이 드러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보도 프레임은 언론의 주관성이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이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던 시점은 한국의 대일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에 달했던 때와 거의 일치합니다. 삼성이 해외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수록 일본의 부품 업체들이 이익을 얻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측이 무역 적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기사도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본 언론의 전반적인 보도 프레임은 이러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벌 간의 경쟁 구도에서 질 수 없다는 논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문화 관련 보도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 전체보다 한류라는 키워드만 보면 굴곡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일본에서 아직도 한류가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문화 침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친숙성이 커지면서 구태여 큰 뉴스로 보도하지는 않게 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컨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방송콘텐츠 시장에 있어서 한류 관련 콘텐츠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또한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문화 보도는 한일간 정치 동향과는 반드시 연동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적하였다시피 정치와 사회관련 보도는 당시 발생한 사건 사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도표에 나와 있듯이 문화 보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은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일본 내에서 혐한론이 처음 나왔던 200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독도 이슈가 불거졌을 때에는 단기간의 약화는 있었지만, 큰 흐름 자체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문화와 관련해서는 2005년에 발생한 갈등요인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후에는, 한두 가지 요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꾸준히 소비, 주목되는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토, 위안부, 역사인식 문제 등의 갈등요소를 일본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정보 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분야별 보도 추이로 보면, 독도 관련 보도는 등락의 폭이 현저해서 프레임이 쉽게 부각되고 해체됩니다. 2005년에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면서, 보도 빈도가 이전에 비해 9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갈등 전인 2004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 약 4년이 걸렸고, 2009년 쯤이 되어서야 상당히 줄어들다가 2012년이 되면서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즉, 평소에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며, 언론 역시 지속적인 전락적인 발신이라고 볼 만한 보도 태세는 갖추지 않으면서 시기적으로 일회성 보도에 그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위안부와 역사 인식 문제, 독도 문제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를 영토주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두 이슈와 연계된 보도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셔도 알 수 있듯이, 한일간 갈등요소의 보도비율에서 독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위안부는 그 중의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올해 8월에서 10월 20일까지, 영토관련 문제 보도 현황입니다. 8월 1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5일 후인 8월 15일에 홍콩 활동가들이 센카쿠를 방문하면서 일본 해양경비대와 충돌을 빚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이슈가 동시에 터진 것은 우리로서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독도와 센카쿠 문제가 동시에 터짐으로써 먼저 발생했던 독도에 대한 일본사회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은 어찌보면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 근거로 8월 10일에서 10월 20일까지의 센카쿠와 독도의 보도량을 비교해 보면 약 3배, 특히 니혼게이지아신문은 4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일본인에게는 센카쿠가 독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반면,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 정치적 극우 세력이 상당히 부상하게 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에서 영토주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정치가들이 이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러한 보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점점 선거와 맞물리면서 언론의 우경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시하라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고,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도 '한치의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영향력이 크지 않던 보수 정당들도 이런 흐름에 합세해서 기세를 얻고, 또 이것이 일본에서 1면 머릿기사로 보도가 되는 것만 보아도 적어도 언론 공간에서는 그러한 흐름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자료 중에서, 독도관련 표제어 부분을 보시면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표제를 어떻게 뽑았는지 그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의 경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다음날 표제가 '독도 방문은 이대통령의 분별 없는 행동'이었고, 요미우리는 8월 12일 사실 제목이 '이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한관계를 악화시키는 폭거' 였습니다. 그리고 마이니치는 '깊이 박힌 가시를 어떻게 뽑 것인가'이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은 '한국 대통령 독도방문은 우행(愚)'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이니치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이명박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돌발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우행'이라는 관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센카쿠 문제가 발생한 8월 15일을 전후해서도 아사히를 제외하고 대체로 여전히 강경한 논조가 이어집니다. 한일관계를 정체를 시키는 대통령의 발언을 우려한다든가, 일본의 외교력, 국력 회복을 통해 영토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주장은 똑같이 법적인 정당성을 주장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강경노선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 9월 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9월 11일은 일본이 센카쿠 열도의 일부를 국유화한 날입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9월 9일에 열린 APEC에서 노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이 15분 간 서서 대화를 했을 때, 센카쿠 국유화 이슈에 대해 후진타오가 노다를 상당히 강력하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틀 후에 국유화가 단행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다 정권의 외교적 실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 정확한 것은 이러한 상황적 변화, 즉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관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일본 언론의 논조가 "한일관계는 외교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영토 문제도 있지만 "한일 외상이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미래지향적 관계에서 바람직하다", "대국적 시각에 입각해서 한일관계를 봐야 된다"는 식으로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중일간의 갈등이 한일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아가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보인다고 해서 한일간에는 갈등이 줄고 중일간에는 갈등이 늘어날 거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본은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시하라 신당이나 유신회, 자민당,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영토주권을 수호를 주장하는 강경한 입장을 이제 다시 어떻게 철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느 정도는 이런 강경 노선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되, 결코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까지는 치달지는 않을 정도의 논조 관리는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과거 10년 동안 문화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되다가, 올해 8월에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정치적

갈등이 경제를 역전하는 2005년의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사회에서의 한국대중문화의 위상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해 경제, 문화적인 면이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문화면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더 이상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흐름이 이미 만들어 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안심할 수 있겠지만요. 또한 현재의 한일관계는 경제가 서로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강한 트렌드를 볼 때 한일관계를 경제로 풀어나가는 가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삼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양극화나 재벌 우대가 사회 문제시 되고 있다는 뉴스도 간혹 나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삼성의 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삼성을 능가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는 보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언론의 프레임에는 없는 '경제적 협력자' 또는 '동반자 관계'를 설정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첫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2002년의 월드컵 개최 기간은 단 한 달이었지만, 그 짧은 축제로 인해 서로간에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관심이 고조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보도량 역시 증가한 경험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앞으로 경제 분야에서의 한일간 협력 프로젝트와 같이 모종의 공동작업을 도모하는 협력체제의 구축이 매우 효과적이며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여러분의 질문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 토론

**Q1)** 첫번째 슬라이드에서 언론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가공해서 정보를 만들어 전달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정보의 이면에는 언론에서 이를 가공하는 사람의 생각 또는 전략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언론사가 정보를 가공하는데 있어서의 편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요 언론사에 대해 산케이신문이 가장 우익이라든가, 마이니치신문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1)** 언론의 정보 편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당시 "편집장의 의향"이라고 봅니다. 그 예로 닛케이의 경우는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정치적으로 좌파적인 성향이 있던 것이, 3년 전쯤에 편집장이 바뀌면서는 상당히 우파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흔히 아사히는 좌파다, 요미우리는 우파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언어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실은 아사히와 산케이에서 가장 공통점이 크게 나타납니다. 제가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분석했을 때를 예로 들어 보면, 북한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법은 산케이나 아사히나 마찬가지로 이런 논법의 출현 빈도가 요미우리나 마이니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니혼게이자이나 마이니치의 경우는 이런 논법이 잘 보이지 않고, 사실과 언동을 나열만 한다는 점에서는 상호 유사성이 있습니다.

한편 산케이는 조금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산케이는 다른 신문사와 다르게, 직접 기사를 파견하지 않고 주요 외신이나 통신사에서 기사를 받아서 보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설에서 자사의 입장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케이는 다른 신문보다 가격을 싸게 해서 저소득층에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5대 일간지의 하나로 분류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그 정당성이나 평가

면에서는 언론으로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Q2)** 그래프를 보면 정치, 사회, 경제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갈등요인을 따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는 갈등요인은 정치적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갈등요소를 나타낸 그래프에는 원래 정치사회 갈등요인이 안 들어간 것이지요?

**A2)** 정치 사회라는 것 안에 갈등요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요인을 말할 때 독도가 8-90%를 차지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이 그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갈등이 야기된 시점에 한국 정치나 사회에 대한 기사는 많이 나지만, 그 중에서 정말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삼아서 정면으로 보도하는 비율은 예상외로 굉장히 적죠.

**Q2)** 저는 오히려 의외였는데요, 정치적 갈등이 있을 때 정치 또는 사회 기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갈등이 없었을 때도 정치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한국 정치의 비중이나 중요성이 제가 볼 때는 다소 다르게 평가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 기사를 쓸 때 한국의 내정이라는 부분이 일본 언론사에서 상시적으로 거론되기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신문도 마찬가지로 일본 내정을 신기란 쉽지 않고요.

**A2)**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2005년에는 한일간의 갈등이 있으면서, 기사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2009년의 북핵 실험과 2010년 연평도, 천안함 사건은 동북아의 이슈입니다. 사실 한일간의 갈등 요소가 별로 없고 보도 비율도 줄어드는데, 마침 일본에서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동북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 긴장 상태가 이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는 2005년에 정점을 찍었지만 2006년에 좀더 높아지는 걸 보면 이건 한일갈등과 동북아 갈등이 겹치면서 최고조에 달했고, 2010년에는 한국에 대한 비판으로서 증가한 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라는 공동체의 정치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의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정에 대해서는 한일 공히 서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한국 대선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잘 모르고, 2008년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뉴스가 몇 개 언론사에서 꼭지 기사로만 나와서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Q2)**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북한 핵 실험을 두고 공통의 위기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정치관련 보도의 부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2002년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이미 북한 문제가 일본에서 일종의 신드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일에 관해서라기보다는 한반도 기사라고 할까요? 그 측면에서는 진폭이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경제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기에는, 좀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분석들에서도 신문에서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경제 문제는 업계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한일관계도 역시 정치적 문제에 의해 좌우된 측면이 많다는 것이 저의 심정적 결론입니다.

**A2)** 북한의 요소가 개입되었을 때 한국에 대한 보도 경향이나 내용이 다를 것 같다는 지적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제가 북한과 관련된 보도를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때그때의 이슈에 맞춰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면이

부족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관계를 경제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 역시 상당히 낙관적 의견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일관계를 한류와 문화로 풀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문화 교류를 아무리 해 보아도 기본적인 갈등을 푸는 데는 정치의 힘이 중요하다고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지금 한일관계에 미친 문화의 영향력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는 제가 오히려 '정치는 그럼 무엇을 풀어 왔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경제나 문화 교류는 이 지역에서 양적·질적으로 양호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시민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의 'bottom-up' 방식으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난데없이 정치 공간에서 'top-down' 식으로 영토 문제가 터졌었죠. 그렇게 봤을 때는 한일관계에서 이러한 정치적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서로에 대한 관심과 존경, 긍정적 평가를 유지해 온 부분이 경제 분야이고, 이 추세가 지속되는 한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한일관계의 효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일본에 비해 여러 지표 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경제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 양호하게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언론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저의 생각입니다.

**Q3)** 먼저 발표에서 제시하신 데이터는 신문 보도의 양적인 측면을 추적한 건데요, 데이터의 출처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라고 분류를 하셨는데, 만약 외교·안보를 따로 떼어 놓는다면 진폭이 가장 클 것이고 정치로 묶어 놓는 것과는 양상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경제 분야에 대한 보도는 완만하게 상승하는데 다른 분야들은 전체적으로 하강세에 있고, 일본 신문에 한국 보도의 양적 추이를 보더라도 2010년에는 모든 수치가 다 내려가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 보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실은 2008년-2010년 사이에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가 났을 때 한국이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삼성 현상 등을 많이 다루다가 지금은 또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오히려 2008-2010년 기간이 예외적이고 지금은 기존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3)** 먼저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각 대학에 모든 신문사와 계약을 맺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각 신문의 창간 이후 모든 기사, 논문 등이 모두 검색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안타까운 게 신문사의 창간 이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외교안보는 그 시각이 어찌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류를 다르게 하면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특히 영토 문제가 불거질 경우는 일본에서 외교안보 사안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으니 진폭이 커지겠지요. 다만 하나의 정치사회적 트렌드를 보여드리기 위한 취지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최근 보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한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하강이라기보다는 2005-2006년에 보도가 비정상적으로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관심의 문제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긴장과 연동해서 보도량의 추이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 보도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서 뉴스가 줄었다기보다는, 그만큼 친숙해져서 새로운 아젠다로서 일본에서 효용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한편 경제 보도의 경우에는, 표제어만 뽑아서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거의 70%를 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하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관심이 이보다 더 떨어질 법도 한데 삼성 효과 같은 요소 때문에 아직 경제가 정치를 능

가하는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Q4)** 한국에 대한 보도 중에 경제 관련 보도가 긍정적인 평가도 많고 양적으로도 많기 때문에 한일관계를 경제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문화 교류와 경제는 함께 묶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역시, 문화 교류와 그 뒤에 있는 경제 교류도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에게 '10년 후 주변국 중에서 누가 제일 위험한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40%가 중국, 21%가 북한, 20%가 일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 대한 불안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일본과 북한이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놀라웠는데, 일본에서 이와 같은 안보 위협에 관한 설문조사를 접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4)** 먼저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중국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 갈등 요인과 시점에도 불구하고 센카쿠와 다케시마 보도 빈도가 거의 3대 1로 나타난 사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일관계를 경제로 풀어야 된다고 했던 말을 조금 바꾸면, 경제적인 프레임은 새로 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한류를 지원할 수도 있고 문화와 경제를 연계시킨 협력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문화에 있어서는 정치적 색깔을 띤 교류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면에서는 이제는 시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보 위협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내각부에서 해마다 외국에 대한 "친근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부동의 1위는 평균 78%로 미국이고, 그 다음이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고 조사 이후 얼마 동안 한국은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2위를 차지해서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반면 최하위는 중국이었고,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조사하면 1위가 북한입니다. 다시 말해 조사방법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한국인이 갖는 일본에 대한 인상과 일본인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인상은 서로 크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이슈에 대해 중국과 한국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다른지, 일본 언론의 주관적 편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앞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언론에서는 대체적으로 중국은 믿을 수 없고 비민주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중국위협론도 강하기 때문에 친근감이 낮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Q5)** 갈등요소의 분야별 보도추이를 보면 독도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내각부 여론조사에서는 친근감과 한일관계 양호한지에 대한 조사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큰 경향과 2002-2011년의 미세한 변화를 같이 보면 어떤 상관성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언론 보도가 청중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도와 청중의 반응이 상관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구요.

또 하나는 미디어의 정보 편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사실 가지 않더라도 필터링이라고 할까요, 취재를 해도 보도가 안되거나 의견이 있어도 공론화가 안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오늘 주로 공식적 담론으로 성립된 것들 속에서 분석하셨는데, 언론의 본심이나 공식 담론이 되지 못한 이야기나, 또는 방송인들이 공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었는지 혹시 겪으신 것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5)** 사실 첫번째 해주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보도가 나갔을 때 이를 접

한 청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 건데, 사실 'Media Studies'가 생겨나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도 이상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틀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칙이 아니라, 가설이나 주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자가 여러 가지 정보를 매체를 통해 접하더라도, 그 정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보도를 접한 이후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주변 사람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면서 형성된 정보와 인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에 관한 일, 내가 직접 경험 못한 일은 내 주변에서 공유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회 갈등이 어느 수준을 넘어 강화되면, 사람들의 여론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부각되면 청자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리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필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에는 사상 통제는 없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여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미 형성된 여론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제 경험 상,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방송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 신문은 방송과 다른 점도 있지만, 역시 가장 크게 비판 받는 존재는 기자클럽입니다. 정부가 허가한 공식 언론 매체들만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끝난 다음에는 다같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신문은 사실 사설을 빼면 어느 신문을 보더라도 사실관계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신문조차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쪽으로만 자꾸 치우치는 것은 언론의 큰 속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Q6)** 삼성 쇼크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삼성이 쇼크였던 이유는 일본 미디어 자체가 국제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해서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까 한국 대선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실제 보시기에 국제 동향에 대한 보도가 적은지, 그리고 국제뉴스 중에서 한국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A6)** 정확한 통계가 기억나지 않아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해 국제 뉴스가 많다는 건 확실합니다. 지면 크기도 그렇고, 뉴스 프로그램에서 외국에 대한 보도의 꼭지 수도 그렇고요. 실제로 아랍 정세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관련 보도의 비중은 한국에서 일본 관련 보도의 비중에 비하면 현저히 낮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관심 분야로 보면 문화도 있지만 특히 한국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는데, 젊은이들은 내향적인 면이 강하고 국제화의 흐름과 멀어진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보니까, 손쉬운 비교 대상으로 한국을 거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현상은 일본 젊은이들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취업 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수출이 중요하다 보니 사원의 어학 점수, 유학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학생들은 시간과 돈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반면 일본의 고용 시스템은 어학 능력이나 유학 경험이 명확한 차별화 요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본 젊은이들은 학창 시절에 외국에 나가기보다 국내에 머물면서 취업 일정을 충실히 따라가려고 하고, 교환학생의 기회보다 회사 면접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시스템의 문제이고, 기업 경쟁의 트렌드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Q7)** 저도 한일관계 향상에 있어 경제협력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협력은 양국에 전반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손익관계가 있을 텐데, 언론이 어떤 부분을 가공하느냐에

따라 경제협력이 부정적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협력의 한계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7)** 삼성에 대해서 치우친 시각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삼성에게 당한다는 위기의식이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 삼성은 '시장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상품 제조 과정에 주목하면 한일간 협력관계가 보다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관계가 실제로 많은 수치에서 나타나는데, 일본은 이런 부분을 보도하지 않고 한국은 계속 대일무역적자를 강조하는 보도를 내죠. 사실 한일관계를 경제적 협력자, 동반자 관계로 제시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언론은 자국의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언론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에너지 측면에서 한일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 문화 교류에 기반한 협력관계의 틀도 있고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관계라는 틀도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의미도 있고 정치적 메시지도 담고 있는 분야를 꼽는다면 저는 에너지 방면에서 훨씬 실질적인 한일간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끝/**